2025년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 사업

심화 컨설팅
심사위원회 심사 총평

심사 총평

○ 심사위원은 총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출판, 도서관, 서점, 문화기획 분야의 균형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위원은 대면 심사를 통해 개별 서점의 운영 현황 및 과제계획서를 검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번 심사는 지역서점이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허브'로 성장하는 변곡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기반과 큐레이션 기획력이 조화를 이루는 서점들이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심화 컨설팅을 통해 각 서점이 자생적 성장 모델을 구체화하고, 서점 간 네트워크 확장과 청년 인력 참여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심사위원 5인 전원 합의로 2025년도 권역별 선도서점 심화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지역서점 71곳을 선정하며, 향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 창출을 기대합니다.

○ AI 기술의 발전, 유통 체계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넘쳐나는 콘텐츠들 속에서 살고 있는 시대에도 책과 서점 공간에 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점은 사양 산업이라면서도, 전국 곳곳에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서점들과 이제 막 개점을 한 곳들도 늘어납니다. 희한하게도 이런 시대일수록 책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서점'에 대한 역할을 되짚어보기도 합니다. 이번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 사업>을 통해, 점점 다양해지는 서점의 유형에 맞게 서점 디지털 경영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데이터 구축을 기반으로 한 북큐레이션 등 독자가 원하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더 성장하고 싶은 서점들 대상으로 맞춤 컨설팅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90여 개 이상의 서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써 내려간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처럼, 이번 컨설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서점 경영모델이 구축되고, 이를 기반으로 서점들이 문화거점 공간으로 발전해 가길 바랍니다.

○ 심사의 초점은 각 서점이 수행계획서 상에서 밝히고 있는 디지털 역량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지원 서점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 디지털 역량에 대한 이해도 또한 상이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에서 밝힌 디지털 전환의 목적을 볼 때, 지원한 서점에 제공할 컨설팅의 방향을 고객 서비스 제고, 서점 관리 역량 강화로 크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선정된 서점들의 수준을 분류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해 컨설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서점을 찾는 주 고객층과 서점의 고유 성격(정체성)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서점 홍보 마케팅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서점은 책을 파는 곳이다'라는 단순한 모델에서 벗어나 지역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진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경영 노하우나 시스템의 구축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서점 경영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세부적 운영에 이르기까지 좀 더 많은 준비와 전문적인 성공 모델에 대한 학습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운 환경의 최전선에서 책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서점인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는 지원들이 확대되길 바랍니다. 다만 일부이긴 하지만 예산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과도한 중복 지원과 경영 활동의 부풀린 포장 등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2025년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 사업 심화 컨설팅 심사를 위해 총 91개 서점의 과제수행계획서 평가 시 완성도와 충실도를 최우선 심사기준으로 삼았음. 서점 운영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항목의 경우 신생 서점이라도 사업참여 의지 및 개별과제 수행계획서의 완성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함. 일부 지원 서점 중 현재 지역문화활동 등으로 지역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